

# 형태생성과정에서 색채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color in the process of form Creation

이선민\* / Lee, Seon-Min  
이민석\*\* / Lee, Min-Seok

## Abstract

It would be investigated how to take advantage of and structure color as form creation of modern architecture and tool of concept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color was introduced actively in the beginning stage of form creation as an image, as collection of data and analysis system, and as creation system of diagram. Also, it was used from the model making stage with experimental device, and was handling to experimental system of various materials and substances. Therefor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lor's originality, color was dealt to space creation system by tool from the process-oriented thought and had given the absolute value in form creation process. Meaning is that the color to be used as a tool in the planning contains a lot of possibilities and values in the architecture planning.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without initial planning of overall color scheme could affect the harmony and integration of the developed architecture. And the system could loose many vital concepts in the creation of the form. In execution of thinking process through the color, it'll be ensured that we can acquire the much better and more various result.

키워드 : 색채, 형태, 생성  
Keywords : Color, Form, Crea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건축의 색채도입과정은 건축의 마감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공간생성 이후 액센트로서 색이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건축의 색채,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의 색채는 건축의 초기 개념화작업과 형태생성과정에서 그대로 형태화 되면서 그 영향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형태생성과 맞물리면서 색은 설계의 초기과정, 형태생성과정, 그리고 재료의 대입단계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의 외관형성과 내부공간 전개와 일체화되면서 건축 색채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건축의 전환적 패러다임 안에서 형태와 색채의 관계성을 재고하고, 3차원적 관점에 의한 색채 개념의 다양한 체계들을 정립함으로써 형태와 관계된 색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계 방식과 차별화를 보이는 여러 가지 사례연구를 통하여 형태의 생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색이 이용됨으로서 색이 공간생성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이로서 색이 가진 물리적 특성 이외에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색채의 생성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공간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과정에 색이 어떻게 개념화되어 기초적인 발상 과정에 생성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색이 가진 본래 의미를 넘어서 창조적인 발상과 공간형성에 우위성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형태 생성과 발상에 있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개념형성단계, 데이터 수집과 분석단계, 블록 레이아웃 단계, 모형작성단계 그리고 재료의 적용을 위한 실험적 과정에 걸쳐 색이 관여하게 됨으로서 창조적 발상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색의 생성성'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발상적 사고 도구'로서 '색의 활용성'을 재평가 하고자 한다.

\* 정회원, 신홍대학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서울특별시SH공사도시연구소 연구실장, 공학박사

연구의 범위는 형태생성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계획개념, 이미지 스케치, 데이터의 분석, 모형형성 등 전체 프로세스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색이 도입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색의 코드화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었거나 형태 생성에 색이 지배적인 도구로서 발상과정에 색이 어떻게 의미화 되고 연속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분석대상의 시기적 범위는 2000년도를 중심으로 한 동시대적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현대 건축물중 색채사고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대상을 조사한다.

## 2. 형태와 색채의 관계적 개념

### 2.1. 형태와 색채의 관계성 변화

건축과 그 내부공간에서의 색채의 역할은 단편적이며 장식적 요소로서 사용되었고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부연적 체계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일 방향적이었던 형태와 색채관계는 건축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양 방향적 관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건물의 형태나 공간구조 역시 결과론적 관점보다는 그 과정성을 중시하는 체계로 전환되게 되었다. 특히 생성적 과정에 대한 의미가 직접적인 건축의 형태나 공간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색채는 건축의 형태 생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내부공간의 유기체적인 표현의 구체화나 감성적 표현을 구체화하는 직접적인 체계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시학에서 사람은 형태(form)와 색채(color)라는 두 가지 기본요소를 통하여 물체를 구분하여 지각한다고 했다. 즉 의미전달을 위하여 물체를 구성할 때 색채는 형태와 더불어 물체를 주변의 다른 물체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해내는 중요한 속성을 가지게 된다.<sup>1)</sup> 1910년경 러시아 입체-미래파에 있어서 예술의 상황은 색채, 선, 단어, 톤들의 내적 본질이 동일한 다른 표현이며 형태와 리듬, 텍스춰 등을 통한 공간, 에너지, 운동들의 동일한 진실임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다. 화가들은 회화의 구성요소를 선, 색채, 표면, 재질 등으로 분리시켰으며, 음악가들은 리듬 속에서 형태를 발견함으로써 음악과 운동을 사용했고, 시인들은 공간, 시간, 색채, 음향, 냄새들이 창조성의 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sup>2)</sup>

이러한 관점은 세기를 달리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색채가 형태와 연결되어 하나의 사고체계로 진화하게 되었다. 스즈키 히로유키가 '형태는 감성을 따른다'라고 표현한 명제와 같이 현대건축의 표현성이 변화되게 되는데, 이는 기능에 의한 공간자체를 주개념으로 집중하던 근대건축과는 달리 외피의 구성과 표현을 통해 감성적 시각의 그레

픽요소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현대 건축으로 오면서 색은 표현에 꼭 맞게 관계된 것으로 대상의 표면에 연결되어 있으며 재료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필요 모두를 성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색은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또는 매체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sup>4)</sup> 색이 공간의 표현적 형태로 정의되면서 형태우위에서 동등한 관계로의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건축의 응집적 표현으로 형태 강화적 관계에서 부분들을 결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색은 형태보다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감성적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동시대적 건축에서 색은 양방향적인 인터페이스화된 공간의 표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형태가 사라지고 표피만이 남는 외관과 내부공간의 적극적 표현체계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형태적인 속성보다 색이 먼저 공간의 속성을 규명하는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서 고정된 기능을 갖지 않는 공간의 표현이나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는 공간의 속성을 구체화하는데 색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형태를 넘어 탈 형식적 형태의 구현체계로서 생성적 관점을 가지게 된다.

### 2.2. 색채의 생성적 특징

생성(becoming)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이 어떤 상태에서부터 변화하여 다른 상태로 됨'을 의미한다. 들뢰즈의 생성의 사유는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지가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끊임없이 확장-변형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불확정적이며 다양한 특성의 패러다임을 담아낼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의 공간을 구현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형상화라는 것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서부터 특이한 추상능력, 감각적인 연상에 이르기까지 망라된다. 형상화는 시각과 청각은 물론 후각과 미각, 몸의 감각까지 동원해서 이루어진다.<sup>5)</sup>

이와 같이 비존재가 존재로 되는 과정으로 평가되는 형상화를 공간생성으로 보았을 때, 그 공간의 형성과정은 생성의 체계로 해석된다. 또한 이와 같은 형상화 과정에서 색은 디자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디자인을 하기 위한 보다 많은 사고기반을 형성한다. 색은 공간의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명쾌한 시각적 판단을 분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생각을 시각화하는 도구와 매체로서 사용되는 것이다.<sup>6)</sup>

#### (1) 탈 형식적 개념 형성체계

3)장재원-김남웅, 현대 건축 외피의 디지털 미디어화 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4호, 2007, p.95

4)http://www.fadu.uba.ar/sitios/sicyt/color/glossary.htm

5)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셀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예코의 서재, 2007,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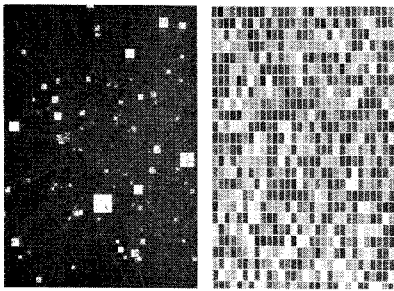
6)이선민, 현대건축의 색채사고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논, 2006, p.46

1)우정원, 왜 흰색은 3개일까, 색채가치 세상, p.164

2)김원갑, 러시아 입체-미래파가 현대건축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6호, 1994, p.69

형태를 이루는데는 어떤 특수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지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며, 의미작용을 벗어난 구체적 실체이어야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기관 없는 신체’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생성원리’와 ‘생성된 흐름’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특수한 이미지는 여기서 ‘생성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터페이스의 하나이며 다른 인터페이스들을 연결하고 ‘생성된 흐름’인 공간을 연결하여 ‘탈 형식적 형태’를 이룬다. 또한 이 ‘생성원리’는 새로운 차원의 프레임이 될 것이다.<sup>7)</sup>

우리가 색이나 형을 볼 때 그것을 형태로서 지각할 뿐만 아니라 색이나 형에 대하여 감정이 더해짐으로서 거기에서 색과 형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게 된다. 심리학적 설명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형과 색의 지각에 대하여 감정이 생기는 것은 보는 사람의 연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sup>8)</sup>



<그림 1> 작가 미상, 색 면을 통한 공간형성

원으로 만들어진 색채는 다양하게 경계 지워진 영역에서 3차원을 생성시키게 되고 같은 면적에서도 넓이와 깊이를 다르게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정성적 관점의 차이는 우리의 시각적 경험에 기초하여 대뇌가 생각하는 색의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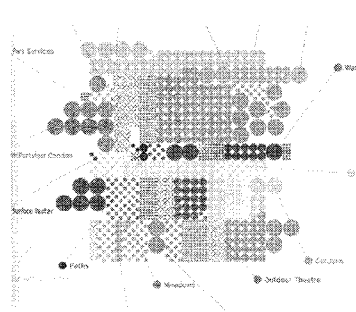
따라서 하나의 색은 물질이나 공간의 개념이 이입되기 전에 단독적인 관찰에 의하면 물리적인 체계로 설명되지만, 물질과 공간, 시간의 개념이 이입되면서 색이 놓은 주변 상황과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경험과 연속선상에서 기억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색을 통해 색이 주는 직접적인 차원이외에 다양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2) 데이터 형성체계

Bernd Kniess는 건축의 고전적 개념이 “물체의 생산”과정을 의미한다면 건축은 공간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기도 하며, 공간은 물체가 창조된 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전 단계에서부터 존재하고, 정보, 물체, 인간이 서로 교류하는 소통적 논쟁단계에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리서치”과정을 건축생산물의 고정된 요소로 받아들이고 리서치과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건축의 중요성을 축소시키지 않으며 건물로 이어지는 발생적 과정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7)임성훈·이동언, 현대건축에서 ‘탈 형식적 형태’의 의미와 그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4호, 2007. 7, p.163  
8)최영훈 편역, 색채학 개론, 미진사, 1996, p.41

고 한다.<sup>9)</sup> 이와 같은 리서치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색채가 분류하고 통합하는 구체적인 개념 전개과정에 도입된다. 실제적인 기능의 분류는 물론, 철학적 요소나 다른 분야에서 가지고 온 다양한 텍스트들을 구체화하는데 사용된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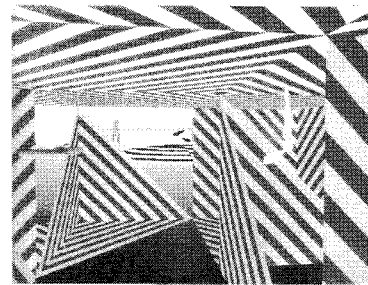
<그림 2> 일반적 공간 다이어그램

<그림 2>의 다이어그램은 나타내고자 하는 정량적인 정보와 그 양적 비교 이외에 다양한 정보를 잠정적으로 느끼게 한다. 위치, 다른 기능과의 비교, 중요도, 다른 대상과의 관계성 등을 체계화할 수 있다. 다이어그램은 단순히 색에 의해

비교하고 코드화 하지만 뇌는 우리가 보는 색을 마음속의 색 이미지와 비교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한다. 색 자체는 어떠한 의도도 없는 단지 반사된 파장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의미를 읽기 때문에 의미를 지니게 된다.<sup>11)</sup> 특히 공간을 형성해야하는 단계에서 3차원의 분석과정은 색을 통한 비교로서 그 명확도를 더욱 가시화할 수 있으며, 창조적인 발상의 단계에 도표의 형식에 의하여 공간생성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떤 다이어그램을 생성시키고 그것을 공간과 연속적 관점으로 연결해갈 것인가는 디자이너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공간으로 창조된다. 따라서 무채색이 가진 것 보다 훨씬 강하게 여러 가지 색에 의하여 코드화됨으로서 그 생성을 다양화 할 수 있다.

(3) 공간의 성형체계

건축에서 색은 독립된 순수한 형태적 존재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는 형태를 인식하기 위하여 색들을 구별한다. 왜냐하면 색이 주는 공간의 성형성 때문에 형태의 지각은 색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3> Andreas Angelidakis, Urban Bungalows, 2005

색이 사물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이다.<sup>12)</sup>

이와 같은 성형성을 근거로 우리는 선이나 면, 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계의 형성을 통하여 공

9)담디 편집부, Adoptions: Bernd Kniess, Design document series 20, 도서출판 담디, 2007, p.8  
10)최왕돈·양신아,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색채의 다중적 의미,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권 2호(통권55호), 2006. 4, p.33  
11)Miller, Mary C, 실내건축의 색채, 박영순 역, 교문사, 1997, p.154  
12)http://www.fadu.uba.ar, op.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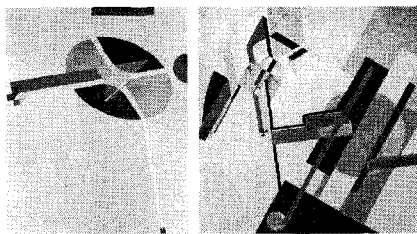
간의 형태를 생성시키고 변경시킨다. <그림 3> 예서와 같이 색은 형태와 작용하면서 복합적인 경계가 되기도 하고 그 성격을 분명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간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게 한다. 이는 경계의 해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모호성을 통한 유연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유연성을 주된 개념으로 하는 내부공간 구성은 색의 성형성을 통하여 구현하게 된다.

또한 색이 공간의 분리(Color detachment) 체계로 쓰이게 되는 경우 보다 능동적으로 색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색채가 분리된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잘려진 조각으로 인지되고 형태를 분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형태 분리를 위한 색채사용은 근대 건축 색채사용기법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 (4) 질료체계

현상적 투명성이란 물질이 지니는 고유한 투명성(literal transparency)에 대비되어 큐비즘에서 시도한 새로운 공간개념이다. 3차원적 물체로서 구성요소는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각각 고유한 덩어리적인 느낌을 갖는다. 이러한 느낌은 그 물체가 지니는 형태의 윤곽, 무게, 질량, 색채, 표면질감, 그리고 고형성의 정도 등과 같은 여러 물리적 특성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덩어리적인 느낌은 그대로 그 물체가 형성하는 3차원적 공간감이 된다.<sup>13)</sup>

많은 요소들 중에서 질료체계를 가장 쉽게 변화시키는 것이 색채이고 특히 공간의 물리적인 속성변화를 쉽게 만들어낸다. 이는 색의 상대적 차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하고 실질적인 속성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건축의 외장과 내부 공간에서 색의 속성변화는 또 다른 형태를 생산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표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로서 구체적인 구조 변화, 축조성의 변화가 유기적으로 대입됨으로서 형태, 구조, 마감 재료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질료를 변화시킨다.



<그림 4> 리시스키, Proun 67

2차원 화면의 색채로서 구축적 조직을 시도한 것은 데스틸과 러시아 구성주의이다. 그들은 초기의 회화작업에서 색채의 구축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건축의 구축 원리에 응용함으로써, 착시적인 화면공간을 실제의 공간으로 변환하게 된다. 그 결과 2차원의 화면 공간에서의 잠재적 구축가능성을 가진 색채는 3차원의 공간구축의 원리가 된다.<sup>14)</sup> 이는 화면 바탕에 명도의 차이를 부여함으로써 투명성을 나타내며, 명도대비가 강하게 일

어나는 저명도 색채부분은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현상적 구축을 통한 공간감의 형성은 색의 명도변화에서 오지만 바탕과의 관계에서 볼 때 투명성을 주게 됨으로서 속성의 변화로 인지된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색이 아닌 투과되는 물질로 질료적 체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색은 여러 가지의 상대적 현황에 의하여 물질이 있는 것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며, 때때로 색 만으로도 질료체계의 변화를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질료체계의 변화는 현대 건축의 공간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되고 있으며 표현성을 중시하는 공간생성체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있다.

### 3. 형태생성과정에서의 색채

우리는 많은 건축물에서 건물의 중요한 표현요소로서 색채가 나타나며,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후에도 그 과정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색의 영역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색이 가진 본래의 역할을 넘어서 형태의 직접적인 생성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후의 적용이라는 색채의 적용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건축 개념의 형성과 발상단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색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동시대적 건축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의 착상에는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현대 건축가들은 설계개념의 존재를 인식하고 능동적인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형적인 개념설계 단계의 한 방법으로서 설계안을 위한 기본 열개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평면설계 개념, 또는 기하학적 형태의 선택, 건물 매스의 기본적 구성, 또는 특정한 요소 또는 공간에 대한 구상 등 여러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sup>15)</sup> 특히 미디어로 인해 자유로워진 현대 건축은 작업초기부터 촉각적인 센스, 즉 물질과 공간이 조합된 '현실'에 대한 감각을 부여하게 된다.<sup>16)</sup>

따라서 본 연구의 중심적 전제조건인 생성원리로서의 색채는 우리가 어떤 과정에 의해 색을 활용하게 되는가에 관한 근본적 이해와 기초 설계과정 각각의 단계에서 색이 어떻게 논리적 개념을 형성하고 형태발상에 어떻게 색채가 생성적으로 접근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이미지 생성체계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색에 대한 자극은 심리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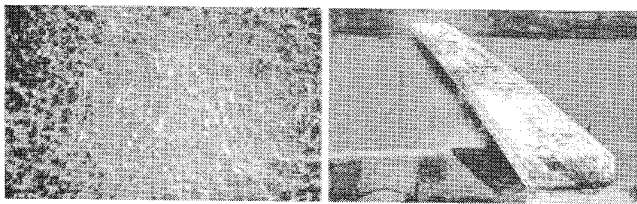
13)임석재, 생산성과 시지각, 시공사, pp.88-89

14)주서령·김광현, 근대 색채조형성의 정립에 관한 이론적 배경,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4호, 1995. 4, p.47

15)이정만, 개념설계단계에서 설계주체와 설계개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22권 8호, 2006. 8,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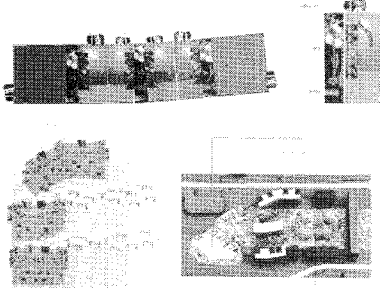
16)Brady, Darlene, Percept vs Percept: Digital Media and Creative Process, invited lecture, Department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Edinburgh, Edinburgh, Scotland, 2002

면과 연관되어 있다. 동시에 색은 외부적인 모습을 보아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세계의 상상력을 통해서도 생길 수 있다.<sup>17)</sup> Boulding은 '이미지'라는 용어를 세상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 "사실이라는 것은 없으며 변화 가능한 가치체계를 통해 여과되는 메시지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누적된 시각적 경험은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결정짓게 되는데 Boulding은 이러한 배경을 이미지라고 하였다. 실내 색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는 실내 색채를 보고 배우며, 사용하는 모든 경험의 복합체인 것이다.<sup>18)</sup> 그러므로 색채는 의식세계보다 훨씬 방대한 집단 무의식의 세계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색채는 의식세계에서 하나의 기호 또는 신호로 볼 수 있으나 무의식의 세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sup>19)</sup>



<그림 5> laN+, Daugava embankment,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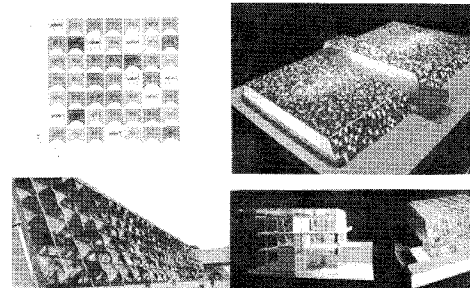
laN+는 Daugava Embankment에서 물의 파동이 주는 사실적 형태와 질료적 특성인 투명성을 통하여 형태생성을 하고 있다. 무형의 물이 형태적인 구상으로 전환되면서 가시적 이미지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물이 주는 전형적 이미지인 파랑 색은 건물의 외피를 규정짓는 강한 형식체계로서 직접적이고 활성화된 물질적 형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림 6> Manuelle Gautrand, Housing, Rennes, Concept sketch/ Concept model

대사이에 환경친화적 관점을 반영한 수목의 그림을 폴라쥬의 기법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대입하고 있으며, 모형작성에서도 자연적 이미지를 삽입함으로써 앞으로 형성될 외부 디자인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작가는 여기서 회화성이 있는 그림을 이입하게 되며 주거 단지가 지향해야 할 개념을 직접적으로 스케치하고 있다. 또한 발코니 부분에 사용된 플라스틱큐브는 투명색으로 유연성 있는 공간을 암시하고 있으며, 가변적 공간임을 가시화 하는 것이다.



<그림 7> WMA, New Flowers Market, Barcelona, 2002

WMA의 New Flowers Market 건물의 외피는 중앙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거대한 외부 표피인 벽과 지붕에 꽃이 직접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색 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설계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꽃의 이미지를 색으로 나타내어 모듈화 된 외피로 변화시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색은 그 어떤 인자보다 가장 강하게 이미지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며, 물리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가시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직접적 형태 생성 인자가 된다. 누적된 시각이미지는 건축가의 사고를 이끌어내게 됨으로서 색은 생성적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 3.2. 스케치 생성체계

모든 스케치는 창조적인 발상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개념형성과정이다. 스케치작업에는 많은 활동영역이 포함되며 발견, 마찰, 합성, 상호상승작용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도구로서 최초의 시도이자 눈에 보이는 결과이다. 스케치에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도구 역시 공간형성을 위한 생성체계로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되고 도입된다. 때로는 처음에 한 스케치가 최종적인 작품에 그대로 이입되는 경우가 있고, 사용된 표현도구의 느낌이 그대로 건축공간에 형상화 되기도 한다.

또한 디자이너는 스케치를 통한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초기 형태에서 자신이 의도했던 형태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를 끌어낼 수 있으며 이것이 창조적인 발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구조화되지 못하고 표현적인 색으로만 도입되었다라든 색에 의하여 형상화되는 것이다.

One Architecture의 House of Hearts는 '순환 다이어그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개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순환을 상징하는 심장을 시각적인 스케치로 보여주고 있다.<sup>21)</sup> 온화하고 추상적인 유기체적 형상과 섬세한 구조체에 의한 다양한 투명도의 막, 공간의 계획개념인 다이어그램적인 심장 밸브 시스템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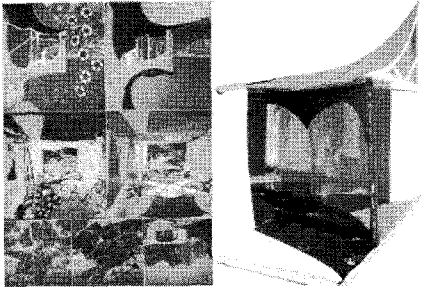
17)Manke, Frank H., Color environment and human response, John Wiley & Inc., 1996, p.14

18)Miller(박영순 역), op. cit., p.153

19)우정원, op. cit., p.169

20)담디 편집부, Adoptions: The luxury of being unaccustomed, Manuelle Gautrand, Design document 06, 도서출판 담디, 2004,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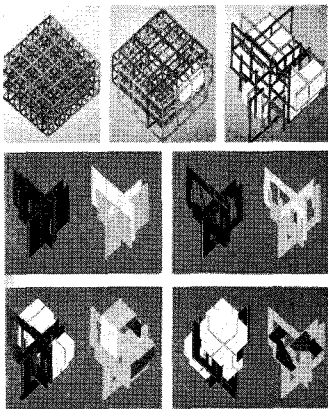
21)담디 편집부, Adoptions: One Architecture, One Architecture, Design document 18, 도서출판 담디, 2006, pp.78-81



<그림 8> One Architecture, House of hearts, Image sketch & Concept model

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케치에서 표현된 이미지는 주택 정면으로 형상화 된다. 이와 같은 직접적 의미로서 심장의 형상은 내부 공간 스케치에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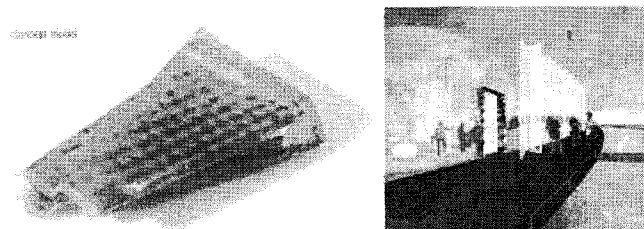
티브로서 적용됨으로서 공간과 그 생성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9> Peter Eisenman, House II, IX Idea sketch

아이젠만의 작업과정은 무의식, 유연성, 임의적 과정과 정확한 형태번역의 과정을 거쳐 형태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논리적 사고에 의한 계획과정에서 형태의 분해에 맞추어 색을 부여한다. 특히 색채와 생성체계와의 관계적 해석을 통하여 다 중심적 형태를 구현하게 된다. 그의 House II, IX에서 형태사

고과정에 직접적으로 색을 대입해가면서 형태생성을 진행시킨다. 이와 같이 분해된 형태와 함께 색으로 구분되어진 매스들은 실내 공간의 구성에도 적용된다. 특히 형태도출의 스케치단계에서 도입되었던 색채들이 내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대입되거나 재료를 분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림 10> Manuelle Gautrand, Pinault 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 Concept model & Image sketch, France

Manuelle Gautrand은 Contemporary art 에서 계획개념인 '강물'은 이미지를 모형으로 만들어 강이 주는 유연성을 건물외관으로 완성하고 있다. 또한 강에서 느껴지고 연상되는 색의 느낌과 질감을 그대로 공간 스케치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공간이미지로 스케치된 색채는 미묘한 차이를 유도하기에 알맞은 재료로 변화되고,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구체적인 이미지 역시 물을 표현한 것과 같이 'Bubble' 라는 제목에 일치된 이미지를 통하여 내부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전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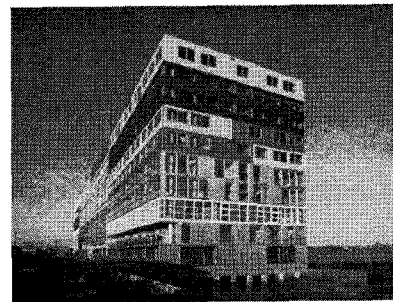
으로 사용되는 이미지표현 도구가 물의 유동성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케치 도구와 스케치의 주제는 상호 연관성을 형성하게 되며 디자이너가 표현 도구를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스케치의 주제, 사용도구가 계획개념과 일치되는 방법으로 전개됨으로서 공간이 가진 특징을 보다 충분하고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 3.3. 데이터 생성체계

공간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색채 사용체계로서 색채가 설계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관여하여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통합하는 개념 전개과정에 표현된다. 공간을 설계할 때 실질적인 기능의 분류는 물론 철학적 요소나 다른 분야에서 가지고 온 다양한 텍스트들을 건축으로 구체화하는데 사용된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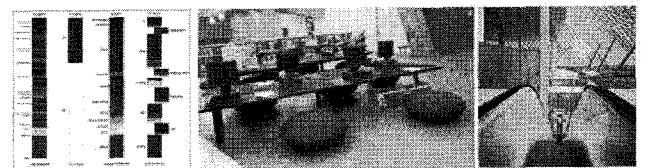
또한 건축가의 직관만으로 더 이상 복잡한 설계기준을 수용할 수 없게 됨으로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모든 조건들을 그대로 가시화함으로써 형태를 생성하게 된다. 여기에 수반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묶어내고 조직화하는데 색이 사용되며 특히 외부 공간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림 11> MVRDV, Silodam, Exterior

MVRDV의 Silodam에서는 비어있는 상자 형식과 속이 꽉 찬 입체 안에서 공간적인 내부화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며 이것은 연속적인 내부공간이 만들어지고 외부는 내부 공간에 의해 만들어진다. 여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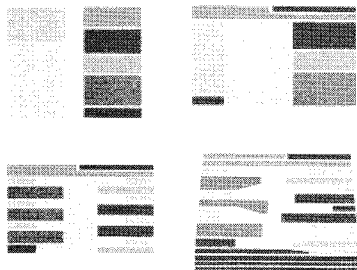
내부공간의 기능을 색으로 구분하고 색을 집적하는 방법으로 형태를 재해석 없이 완성시킴으로서 기능적인 조건과 색을 일치시키게 된다. 기능의 집적이 색의 집적으로 나타나며 기능의 재해석과정이 없이 색채 역시 입면블록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색채에 있어 여과의 과정이나 조화론적 관점에 의한 조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강한 형태적 특징을 드러냄으로서 데이터스케이프화 된 색채로 평가된다.



<그림 12> Rem Koolhaas, Settle library

22) 최왕돈·양선아, op. cit., p.33

Rem Koolhaas는 많은 스케치와 모형을 통한 형태도출에 다채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색을 통하여 각 공간을 분류하고 산정하게 된다. 이것이 공간과 정확하게 일치된 색으로 대입되진 않으나 초기 다이어그램 생성단계에서 나타났던 색은 건물 전체의 내부 색채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형성된 공간 분류과정에서 나타난 색채가 지닌 이미지와 공간의 최종 이미지가 최초로 다이어그램 형성과정과 일치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림 13> NL Architects, Bureau Bouwkunde

NL Architects의 Bureau Bouwkunde에서는 필요한 공간을 계량화된 색의 블록으로 생성하고 기능에 따른 공간설정을 색을 통하여 분류한다. 그런 후에 각 블록들을 상관성 있게 연결시키고 긴밀하게 이입시키면서 평면적 공간구조가 아닌 입체적 구조로 전체 공간의 레이아웃을 만들어낸다. 수직적인 블록레이아웃은 전체 형태를 만들어가는 기본구조가 되며 색 면의 양을 유지시키면서 색종이를 자르듯이 공간을 재배열하고 끼워 넣으면서 구체적으로 형태를 완성해 간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동시대적 건축은 섬세한 색채의 조화를 피하기 보다는 그 과정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여과 없이 '데이터' 그 자체를 색으로 분류하고 공간을 코드화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디자이너의 계획개념을 과정적 가치로 설정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데 초점지워져 있는 것으로, 근대 건축이나 그 내부공간에서 볼 수 없었던 데이터화된 색채코드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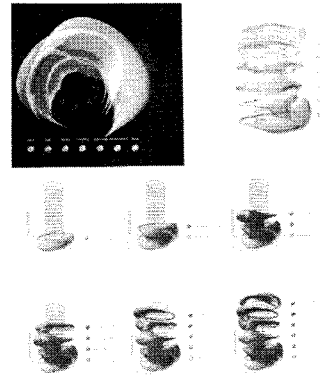
### 3.4. 다이어그램 생성체계

다이어그램은 의사소통에 있어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적인 설명적 다이어그램과 디자인 형태의 의미를 가지는 생성적 다이어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중 생성적 다이어그램은 디자이너의 창조적 직관과 사물에 대한 관찰에 의해 만들어지며 주로 디자인 초기에 비물질적 개념을 결과물로 구체화하는데 사용된다.<sup>23)</sup>

MVRDV에게 있어서 다이어그램은 건물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상호 연관지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어졌으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고려되어지고 있다. 반 벤 버클의 다이어그램은 변이과정을 거치면서 건축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빛, 공간감, 인지도 등과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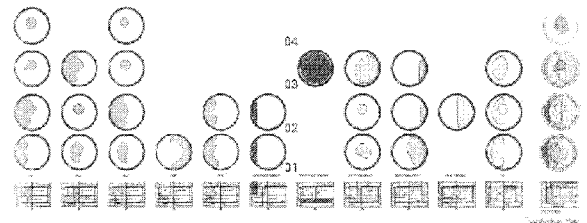
23)박현수·심은주, 투상도법을 이용한 건축디자인의 형태생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20권, 6호, 2006. 6, p.80

되면서 간접적 방식으로 구축된다.<sup>24)</sup> 이는 근대 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다중적 다이어그램으로서 입체 다이어그램이 빛, 재료, 공간감 등의 건축적 요소와 연결되며 간접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림 14> UN Studio, On-line and Off-line shop, Program

또한 활동 조직도로서의 다이어그램은 그대로 건축공간으로 구축된다. 각 유닛들은 3차원의 모듈 속에서 만들어진 입체 공간 단위들이기 때문에 조합자체가 건축공간이 바로 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 유닛들은 서로 다른 재료와 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택된 조합은 건물의 입면에 그대로 표현된다.<sup>25)</sup> UN Studio의 다이어그램에서 보았을 때 시간과 활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공간행태를 보여주며 낮과 밤의 구매활동의 동시성들이 색을 통해 나타나며, 단순히 선이나 면에 의해 구분되는 공간감이 아닌 색이 혼합되고 겹쳐짐으로서 공유된 공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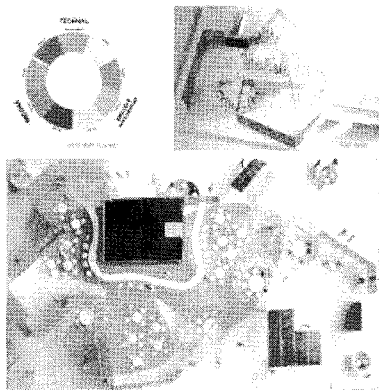
<그림 15> IaN+, Mies van der Rohe foundation

IaN+의 Mies van der Rohe foundation 다이어그램에서 계량화된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잠정적인 공간을 예측하기도 하고 중심적인 공간과 부수적인 공간의 차이를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색을 통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코드화하기도 한다. 평면에 펼쳐져 있거나 단일 색을 통한 다이어그램보다 구체적인 공간과 각 공간의 비교, 연속성 등을 느끼게 된다. 때때로 다이어그램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다이어그램의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3차원을 그대로 공간화하게 된다. IaN+의 경우 다이어그램이 여과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공간화 되고 여기서 겹쳐진 색채는 공간을 연결하며 연속적인 공간도출에 직접적으로 활용된다.

Manuelle Gautrand의 Technal Showroom은 파리 Batimat에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전시장 건물이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개념인 '대지'와 '하늘'을 바닥과 천정에 표현하였다.

24)김종진, 현대건축에 적용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5권, 1호, 2006. 2, p.26

25)Ibid., p.25



<그림 16> Manuelle Gautrand, Technal show room, Study model

이는 여러 요소들의 통합을 통해 순백색의 HBS 그룹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조각된 표현은 세 가지 밝은 색을 사용하여 각 색깔별로 세 회사의 상호를 표현하고 있다. 그 색깔들은 앞면과 옆면에 칠해져서 새하얀 바닥과 칸막이, 가구 등의 표면에 반사된다. 이로서 제품전시실은 다채로운 색상을 띠면서 생동감 있게 변화한다.<sup>26)</sup> 기업을 분류하는 코드로 사용된 색채는 실제 공간 형성에서도 모형과 일치되어 실행되었으며 이는 공간을 쉽게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색채로 활용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추상적 개념의 구축을 통해 디자인을 실체화하는 건축 디자인 작업에서 공간 형상화의 매체로 다이어그램이 사용되며 여기에 도입되는 색채는 면적배분, 공간병합, 프로그램화된 공간구분, 그리고 공간 합성 등 색의 농도, 색의 차이, 색면의 겹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생성에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5. Model 생성체계

건축적 영감 및 혁신은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특히 무엇보다도 작업과정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색은 최종적 모델 작성이외에 개념을 형상화시키는 모델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실험된다. 실험단계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모습은 직접적으로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조정하고 변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양한 시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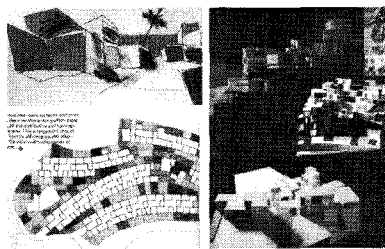
계리는 설계대상지역의 주변 환경을 모형을 이용한 컨텍스트 분석을 통해 파악한 후 프로그램을 위한 목재조각 덩어리들을 배경과 연관시킨다. 다음과정으로는 프로그램과 형태의 구성적 관계를 보여주는 스케치작업을 전개하며, 구체적인 아날로그



<그림 17> Frank O. Gehry, Bridge of lif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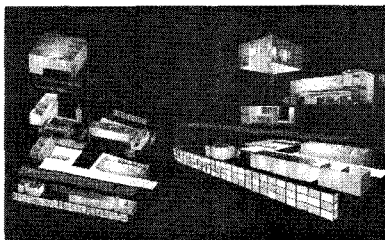
모형을 작성하고 이를 3D 스캔을 통해 디지털 정보로 변화시킨다. 그는 초기의 조형아이디어의 출발을 사물로부터의 즉물적인 차용을 통해 이루어내며 여기에 자신

만의 직관적인 감각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종 완성물이 단일 색으로 만들어질 지라도 작업과정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은 다양한 색 덩어리의 조합을 통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색과 재료를 실험적인 생성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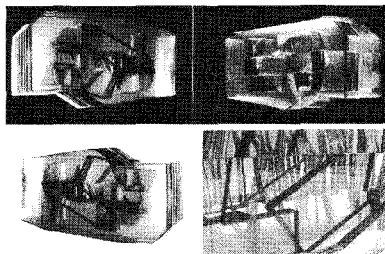
<그림 18> Actar Arquitectura, Seventy dwellings

Actar Arquitectura의 Seventy dwellings의 사고 과정에서 스케치 단계부터 모형제작, 그리고 단지배치에 이르기까지 형태를 생성하기 위한 작업과정에 원색을 대입하면서 병행시키고 있다. 집합주거가 가질 수 있는 획일적인 개념의 탈피를 색을 통하여 실행시키면서 색을 여러 가지 각도에 이입시키고 다양한 표정의 주거형태를 생성하고 있다. 이는 색을 형태생성과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무채색의 모형으로 얻을 수 없는 다양성을 이끌어내게 된다.<sup>27)</sup>



<그림 19> Peripheriques architects, Cafe musique

용하여, 안과 밖을 뒤집고 위아래를 뒤집는 작업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공간, 형태, 색상, 재료를 통한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생성 실험을 하고 있다.<sup>28)</sup> 색과 패턴, 그리고 다양한 질료의 혼합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형태를 생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림 20> IaN+, Goethe House, 1999, Spatial concept

IaN+의 Goethe House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형식적 제고에서 시작하는데 건축의 형태라든지 형상에 대한 제고가 아니라, 형태의 재현을 통해 집이라는 공간이 가능한 변형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형태에 대한 괴테의 관심을 출발점으로 택하고 하나의 형태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것, 형태를 정적인 사물이라는 본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장래에는 움직이기도 하고 변화도 하게 된다.<sup>29)</sup> 이러한 재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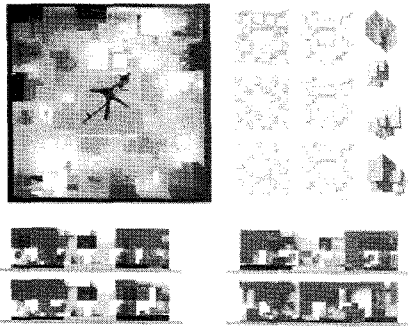
26)담디 편집부, Adoptions: The luxury of being unaccustomed, Manuelle Gautrand, Design document 06, 도서출판 담디, 2004, p.94

27)이선민, op. cit., pp.124-125

28)담디 편집부, Adoptions: Happy architecture in a real world, Peripheriques architects, Design document 24, 도서출판 담디, 2007, p.12



변화현상에 대한 컨셉 모형의 작성 시 투명색을 가져오게 되며, 여기에 단면의 색에 차이를 두어 각 공간별 단면색을 다르게 나타냄으로서 유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바닥, 벽, 천장, 그리고 벽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공간의 연속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의 조직처럼 생명의 흐름을 아크릴의 투명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형의 재료가 투명성을 지닌 아크릴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아크릴 단면을 통하여 나타나는 투명색이 공간의 연속성과 내부공간의 생성적 관점을 갖게 한다.



<그림 21> Bernd Knies, Telematic landscape

Bernd Knies의 Telematic Landscape에서 자연의 이미지를 무한의 차원을 나타내는 구조로서 형상화 하고 있다. 디지털 초목은 긍정적 이자 부정적인 공간의 혼재로서 부가된

아날로그와 디지털 재료는 시각적 촉각적 특성을 만들어 낸다. 이 구성은 멀고 가까움을 단축시키며 위, 아래, 관통의 시각에서 새롭고 비 직선적 개인의 자세를 만들어낸다.<sup>30)</sup> 디지털화된 초목의 이미지를 유백색의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큐브로 생성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단면형상은 입면 계획 시 여백의 부분에 붉은 색의 이입을 통하여 구조화하고 사용가능한 형태로 완성된다.

이와 같이 모형의 생성과정에서 생기는 과정적 실험을 통하여 형태를 발상을 위하여 색을 이입시키게 되며 다양한 형상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모형작성과정에서 생성되는 색채는 최종적인 완성단계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되며 직접적으로 대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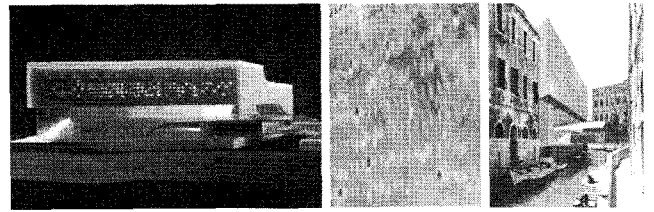
### 3.6. 질료 생성체계

건축색채는 재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면서 재료의 종류와 표면처리에 의하여 다르게 표현된다. 색채와 재료와의 관계적 해석은 색을 단지 질료로서 보려는 시각을 탈피하여 이것과 상호 작용하는 체계로 분석하고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색채와 질감은 다양한 분석과 실험 그리고 표현적 가능성의 연구를 통하여 건축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재료와 물리적 해석을 통한 색채의 사용은 초기 디자인 과정에 수반되는 생성체계에 관여하게 된다.<sup>31)</sup>

29)담디 편집부, Adoptions: IaN+, Microinfrastructure, Design document series 08, 도서출판 담디, 2004,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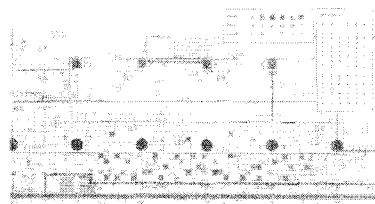
30)담디 편집부, Adoptions: Bernd Knies, Design document series 20, 도서출판 담디, 2007, p.132

31)이선민, op. cit., p.185



<그림 22> UN Studio, Architecture Faculty, University of Ven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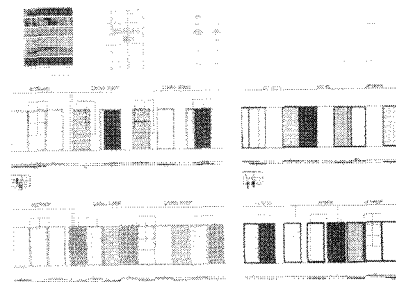
색을 통한 레이어의 형성은 현대건축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표현요소로서 많은 부분 사용되고 있다. UN Studio는 건축표현을 표면적 잠재성의 논리를 이중적인 개념으로서 색과 질료의 체계로 해석하여 색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건축가이다. 새로운 디지털의 조작을 이용한 비표준적인 건축을 추구하여 색의 사용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개체나 단일적인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의 색을 질료의 겹침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레이어드된 색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겹쳐진 색을 실험하고 이를 어떻게 구조화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



<그림 23> Peripheriques, Kaleidoscopic garden, 1999

Kaleidoscopic garden의 계획개념은 공간을 돌아다니고 매번 서로 다른 관점, 새로운 공간적 감각, 새로운 분위기를 찾음으로서 기쁨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더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창출하고 거울판과 반사물 들을 통해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닥을 유리로 만들고 모듈과 빛, 금속구조를 빛으로 만들어내면서 빛의 색상과 강도를 변화시킨다.<sup>32)</sup> 색을 빛으로 해석하면서 나타나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고정된 형태가 가질 수 없는 감성적 공간이 형성된다. 색은 더 이상 칠해지는 체계가 아닌 평면에 대입되어 새로운 공간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새롭게 규명되게 된다.



<그림 24> Sadar Vuga Architekti, Private apartments, Slovenia, 1999

SVA의 Private Apartment는 오래된 주택가의 아파트로서 기존의 벽과 틈의 shell에서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며 안식적인 생활방식을 수용하는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내부 분위기는 활력적 생활방식과 상호 연관되어야 하고, 중앙의 하중을 견디는 벽의 원래 shell은 공간의 구성이나 주거

32)담디 편집부, Adoptions: Peripheriques architects, Design document series 24, 2007, p.214

공간의 본성을 결정짓지 않아야 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네 개의 행위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아파트의 양쪽 열린 공간은 이 벽장을 통해 연결되어지며 벽장의 안쪽 면은 슬라이딩 패널에 의해 닫혀지게 되는데 이 패널은 다양한 재료와 색으로 덮이게 된다. 이는 새로운 내부 파사드가 되고 패널의 다양한 효과는 자연광, 인공광과 합쳐지며 두개의 레일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통해 분위기와 활동, 인원수 등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sup>33)</sup> 따라서 색이 직접적인 마감재로서 공간을 조절하게 된다.

건축에 있어서 색은 최종적으로 질료로서 완성되고 마감된다. 이는 반드시 물질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색 면과 그 면의 접침에 의해 질료로서 공간을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색은 형태를 생성하기 전에 색의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의 발상에 전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건축과 실내디자인 전반에 걸쳐 색의 표현방식은 패러다임의 변화, 실현가능한 재료와 공법의 발전에 의하여 거의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전환적 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자유로움은 과거에 비해 색을 통해 형태생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색이 주는 다양한 과정을 반영할 수 없다면 독창적인 형태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색은 이미지형성체계로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도구로서, 그리고 공간을 구획하고 계정하는 다이어그램의 생성체계로서 형태생성의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델작성 단계에서 공간을 생성하고 외부 형태를 규정하는 실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감재료로서 질료적인 체계로 공간대입과정에서 이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건축과 그 내부공간에서의 색채적용방법은 과거의 색채사용체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색이 가진 특징과 함께 개념전개와 형태생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며, 공간생성체계로 다루어짐으로써 색이 가진 본질적 특징 이외에 생성인자로서 적극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색이 생성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차원은 일반적으로 짐작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형태생성과정에 색의 이입이 없는 체계로 접근하

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많은 것을 손실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색을 통한 사고과정을 가짐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깊이 있는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김성호, 현대건축사교론, 미진사, 1997
2. 김원갑, 러시아 입체-미래파가 현대건축 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6호, 1994. 6
3. 김종진, 현대건축에 적용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1호, 2006. 2
4.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예코의 서재, 2007
5. 박현수·심은주, 투상도법을 이용한 건축디자인의 형태생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0권 6호, 2006. 6
6. 우정원, 왜 원색은 3개일까, 색색가지 세상, 도서출판 국제, 2001
7. 이선민, 현대건축의 색채사고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논, 2006
8. 이정만, 개념설계단계에서 설계주제와 설계개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8호, 2006. 8
9. 임석재, 생산성과 시지각, 시공사, 2000. 2
10. 임성훈·이동언, 현대건축에서 '탈형식적 형태'의 의미와 그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4호, 2007. 4
11. 장재원·김남웅, 현대 건축 외피의 디지털 미디어화 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4호, 2007. 4
12. 주서령·김광현, 근대 색채조형성의 정립에 관한 이론적 배경,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4호, 1995. 4
13. 최영훈 편역, 색채학 개론, 미진사, 1996
14. 최양돈·양선아,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색채의 다중적 의미,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2호, 2006. 4
15. 담디 편집부, Adoptions: Interview with Bernd Knies by ilka & Andreas Ruby, Bernd Knies, Design document series 20, 도서출판 담디, 2007
16. 담디 편집부, Adoptions: IaN+, Microinfrastructure, Design document series 08, 도서출판 담디, 2004
17. 담디 편집부, Adoptions: The Luxury of being unaccustomed, Manuelle Gautrand, Design document series 06, 도서출판 담디, 2004
18. 담디 편집부, Adoptions: One Architecture, Design document series 18, 도서출판 담디, 2006
19. 담디 편집부, Adoptions: Happy architecture in a real world, Peripheriques architects, Design document series 24, 도서출판 담디, 2007
20. 담디 편집부, Adoptions: Sadar Vuga Architekti, Tendencias, Design document series 17, 도서출판 담디, 2006
21. Miller, Mary C, 실내건축의 색채, 박영순 역, 교문사, 1997
22. Manke, Frank H., Color environment and human response, John Wiley & Inc., 1996
23. <http://www.fadu.uba.ar/sitios/sicyt/color/glossary.htm>
24. Brady, Darlene, Percept vs Percept: Digital Media and Creative Process, invited lecture, Department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Edinburgh, Edinburgh, Scotland, 2002

<접수 : 2008. 8. 29>

33)담디 편집부, Adoptions: Sadar Vuga Architekti, Tendencias, Design document series 17, 도서출판 담디, 2006, p.136